

청소년의 샤넬프로이데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인식의 조절효과*

조 명 현¹⁾

안 도 연[†]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정서인 샤넬프로이데가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하며, 이를 내적, 대인관계적, 환경적 자기인식이 조절할 것임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샤넬프로이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자기인식(내적, 대인관계적, 환경적), 우울, 불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변인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통제 변인으로 우울과 불안을 투입한 후 분석한 그 결과, 첫째, 샤넬프로이데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하여, 샤넬프로이데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적 자기인식과 대인관계적 자기인식이 평균 이상인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효과를 보인 반면, 평균 미만인 경우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환경적 자기인식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불행을 기대하는 정서이자 반사회적 특성이 잠재할 가능성이 있는 샤넬프로이데 경향이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과 대인관계 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두 변인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주요어 : 샤넬프로이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자기인식

* 본 연구는 (주)서던포스트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 연구교수

† 교신저자: 안도연,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조교수, (18101)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양산동),

E-mail: psydoyoun@hs.ac.kr



Copyright ©2022,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은 사이버공간에서 의도를 갖고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로(Hinduja & Patchin, 2010), 최근 10여년 사이 미디어에서 자주 보고되고 있다. 인구의 증가와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삶의 다양한 관점과 활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점만큼이나 고려되어야 하는 부작용 역시 공존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타인과 소통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지만, 인간은 언제나 이타적이고 친사회적이지만은 않기에 갈등과 반목이 존재하기도 한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이러한 부정적 결과 중 하나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률은 19.7%로 높은 수준이었고,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역시 9.5%로 높아서 다수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가해를 하고 피해를 입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은 소수 비행청소년들의 일시적 문제는 아니며, 인터넷을 통한 생활 양상이 발전함에 따라 일반 청소년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사이버불링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과 같이 소통 방식이 발전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19). 무엇보다 사이버불링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로 익명성 뒤에 숨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인 괴롭힘보다 더 심각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김민선, 손병덕, 2020).

이러한 현상의 근원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불행에 쾌감을 얻는 정서인 샤텐프로이데에 주목하고 이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자기인식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타인의 불행에 대한 기대는 이것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해행동으로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는 자신의 샤텐프로이데적 신념과 이와 관련된 인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오랜 시간 교우관계가 지속되고 자아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타인의 관점에 민감하므로 관계적 차원에서 개인의 정서경험과 이를 알아차리는 자기인식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샤텐프로이데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자기인식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주요 원인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개인적 특성으로서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포함한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김정송, 2007;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 2004; Crawford, Cohen, Midlarsky, & Brook, 2001; Slopen, Fitzmaurice, Williams, & Gilman, 2012). 청소년의 높은 우울 수준은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권문자, 2013; 김태용, 2016), 특히 정서적으로 우울한 사람들 중 행동 문제가 많고 자기개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김태용, 2016). 또한 높은 불안

수준은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모두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는데, 불안한 정서상태가 개인을 위축되게 만들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이러한 경험은 다시 제3자에 대한 가해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유선미, 김정민, 김찬권, 2017). 즉, 우울과 불안은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매우 중요한 촉발요인이 된다. 이 외에도 높은 충동성과 공격성,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 역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김은경, 2012; 유선미, 김정민, 김찬권, 2017; 전신현, 이성식, 2010; Hinduja & Patchin, 2012).

한편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가해행동 피해경험, 비행 친구의 영향, 인터넷 사용시간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염동문, 김선주, 이성대, 2014; 전신현, 이성식, 2010; Snell & Englander, 2010).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비행을 하는 친구들로부터의 연령대와 관계없이 매우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고(이정민, 조운오, 2016), 이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획득하는 사회적 규범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의 피해경험을 되갚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폭력 경험 자체가 폭력에 대한 용인적 태도를 갖게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Price, 2002). 이는 다양한 폭력 콘텐츠에 간접적으로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폭력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음은 물론 폭력과 반사회적 자극에 매우 둔감해지게 된다는 점과도 연결지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최광선, 정명선, 1999; Cline, Croft, & Courier, 1973).

이렇듯 지금까지 연구들은 주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들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에는 관계적 측면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관계적 장면에서 인간은 정서를 통해 서로의 느낌과 신념, 행동의 의도 등의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정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고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Keltner & Haidt, 1999). 이에 정서는 타인에게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동기요인이 될 수 있다. Higgins(1998)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본태적으로 자기고양동기가 있고, 사회적 장면에서 인간은 타인과 다양한 비교를 하면서 자신이 타인보다 못한 상태를 경계하고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한다(Wills, 1981).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이 더 나은 상태에 있도록 만들고자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때때로 타인의 상태를 자신의 상태보다 더 나쁘게 만드는 방향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속에서 느끼는 정서 중 타인의 불행에 대해 유쾌한 감정을 느끼는 사덴프로이데(schadenfreude)의 역할에 주목해보았다.

사덴프로이데

사덴프로이데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이에 대해 기쁨을 느끼는 정서로(Smith, 2013), 독일어에서 고통과 손실을 의미하는 “schaden”과 기쁨과 환희를 의미하는 “freude”가 결합된 단어이다. 사람들은 불구경이나 싸움 구경을 보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을 재미있어 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사덴프로이데가 우리 일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이

다. 샤텐프로이데는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살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다(Van Dijk, Ouwerkerk, Smith, & Cikara, 2015). 샤텐프로이데는 주로 관계적 장면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때로는 질투나 시기심 등과 같은 정서의 특성과 혼동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타인의 상태와 관련되어 유발되는 정서는 타인의 행복/불행 상황과 이에 따른 자신의 유쾌/불쾌 정서의 두 개의 차원에서 구분해볼 수 있다(Coppens, 2008).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정서 특성을 해석해보면, 친구가 성공했을 때 이를 배아파하는 것과 같이 타인의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 '불쾌한' 기분을 경험하는 것은 시기심(envy)으로 볼 수 있고, 친구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타인의 '부정적인' 상황에 '유쾌함'을 느끼는 것은 샤텐프로이데로 볼 수 있다. 즉, 상대방의 긍정적 상황을 싫어하는 것과 부정적 상황을 좋아하는 것은 자기고양동기 측면에서는 유사한 내적 상태로 볼 수 있지만, 상황의 특성과 구체적 정서의 세부적 차원에서 보면 변별적인 다른 정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샤텐프로이데의 결과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나, 몇몇 연구들은 샤텐프로이데가 발생하는 선행 상황과 이후 샤텐프로이데의 행동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사회비교 상황에서 샤텐프로이데를 느끼고 있었다(Steinbeis & Singer, 2013). 게임상황에서 아동들에게 자신과 상대방의 결과를 모두 보여준 경우, 자신들이 이겼을 때는 상대방이 이겼을 때보다 졌을 때 더 좋게 느낀 반면(즉, 샤텐프로이데), 자신들이 졌을 때는 상대방이

졌을 때보다 이겼을 때 더 나쁘게 느끼고 있었다(즉, 시기심). 이러한 경향은 더 나아가 동기적 차원으로도 검증되었는데, Brambilla와 Riva(2017)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좌절이나 실패에 대해 비경쟁상황보다 경쟁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의 욕구만족을 경험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경쟁상황에서 경험하는 샤텐프로이데가 동기적 차원에서 자존감과 통제감, 소속감, 의미있는 존재로서의 기본 욕구를 높인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샤텐프로이데가 자기상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샤텐프로이데는 신경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개인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샤텐프로이데를 경험할 때는 뇌의 보상체계에 해당하는 선조체(striatum)가 활성화되면서 강한 보상반응을 일으켰다(Takahashi et al., 2009). 따라서 샤텐프로이데는 상대방의 부정적 상황을 도구로 하여 자신에게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되기를 기대하는 요인인 것이다.

샤텐프로이데와 반사회적 행동

이러한 샤텐프로이데는 반사회적 행동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Demeter, Rad, & Balas, 2021; Erzi, 2020; Ouwerkerk & Johnson, 2016; Sawada & Hayama, 2012; Wang, Lilienfeld, & Rochat, 2019). Brubaker, Montez와 Church(2021)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대표적인 세 가지 특성(Dark Triad), 즉 자기에,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성향은 타인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행동(trolling)을 예측하는데, 그 사이에서 샤텐프로이데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샤텐프로이데는 반사회적 성

격특성이 원인이 되어 실질적인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사토프로이데가 높은 사람들은 공감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Rad, 2021). 이는 사토프로이데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사토프로이데가 높은 사람들은 관계적 상황에서 가해나 공격과 같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 행동욕구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사토프로이데와 공격행동 간의 관계는 현상적으로 유사한 정서인 시기심과 공격행동의 관계를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시기심은 타인이 우월하게 지각되는 사회적 비교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Smith & Kim, 2007), 국내 아동·청소년 및 노인 연구 등을 살펴보면 연령에 관계없이 시기심을 크게 느끼는 경우 관계적 측면에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강다겸, 장재홍, 2013; 박우람, 홍상환, 2015; 성윤아, 김윤정, 2018). 사토프로이데와 시기심은 공통적으로 타인이 긍정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동시에 타인의 부정적인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유점이 있다. 또한 두 정서는 현상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높은 상관성이 발견되므로(안도연, 조명현, 2022; 이내아, 2014; Abell & Brewer, 2018), 자기고양 동기의 토대로서 유사한 방향으로의 행동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타인에 대한 사토프로이데가 상대에 대한 덜 긍정적인 고 더 부정적인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자기인식

그런데 사토프로이데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 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알아차리는 자기인식(self-awareness) 개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자신이 무엇을 선호하고 어떤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를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적으로 자기인식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Duval & Wicklund, 1973), 자신에 대해 정서적·인지적으로 깨어있는 메타인지 상태를 일컫는다(Morin & Everett, 1990). 자기인식은 접근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으로 나누기도 하고(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 환경적 자기인식으로 나누기도 한다(Govern & Marsch, 2001). 다만, 자의식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Fenigstein 등(1975)의 분류의 경우 병리적 성격의 자기초점 개념과 유사하여 보통 일반의 건강한 자기인식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Franzoi, Davis, & Markweisse, 1990), 이러한 맹점을 보완한 개념으로 최근에는 Govern과 Marsch(2001)가 제시한 자기인식 분류가 더 현실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정미, 박홍석, 2017). Govern과 Marsch(2001)는 자기인식을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림으로써 자기에 대해 잘 아는 '사적 자기인식', 사회적 장면의 타인 시선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인지하는 '공적 자기인식', 자신의 주변

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아차리는 ‘환경적 자기인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자기인식을 주의(attention)의 차원에서 폭넓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를 각각 ‘내적 자기인식’, ‘대인관계적 자기인식’, ‘환경적 자기인식’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이정미, 박홍석, 2017). 세 요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내적 자기인식은 가장 일반적인 자기인식의 형태로,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자신이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을 아는 것을 뜻한다. Duval과 Wicklund(1972)의 객관적 자기인식이론(Objective Self-Awareness theory)에 따르면, 자기의 주의가 스스로에게 집중이 될 때 자신이 지니는 행동 기준에 부합하려는 동기가 촉발되는데, 도덕행동의 경우 옳다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현실 자기의 모습에서 차이가 있다면 이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옳은 행동을 하게 된다(Higgins, 1987). Beaman, Klentz, Diener와 Svanum(1979)의 할로윈 실험에서 거울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사탕바구니의 사탕을 하나씩만 가져가라는 규율을 더 잘 지켰다는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나를 인식하는 과정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나쁜 행동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 자기인식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것이 반드시 윤리적으로 옳은 것으로 이끄는 과정이라고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술하였듯이, 내면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으며(Higgins, 1987), 이에 타인의 부정

적 결과가 합당하다는 신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Carver(1975)의 실험에 따르면, 타인이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 자기인식이 점화되는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처벌 강도를 줄이지 않았다. 즉, 자기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옳음의 기준(standard of correctness)을 상기시켜 타인이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내적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으로 하여금 내면의 주관적 가치를 일깨우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인관계적 자기인식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장면에서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시각에서 적절해 보이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대처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시각에서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려고 동기화되는데(Leary & Kowalski, 1990; Schlenker, 1980), 타인으로부터 관찰된다고 느낄 때 자신을 더 살피고 관계적 장면에서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행동을 수정하려는 경향이 있다(Markus, 1978; Zajonc, Heingartner, & Herman, 1969). 이러한 대인관계적 자기인식 역시 내적 자기인식과 마찬가지로 현상적 측면에서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사람들은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기도 하고(van Bommel, van Prooijen, Elffers, & van Lange, 2014; van Vugt, Roberts, & Hardy, 2007), 반대로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때때로 반사회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Dishion, Patterson, & Griesler, 1994). 청소년기

의 경우 비행행동을 하는 것이 나이보다 더 어른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래집단 안에서 인기를 얻거나 수용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비행행동이 자행되기도 한다(Dijkstra et al., 2015, Moffitt, 1993). 다시 말해, 대인관계적 자기인식은 타인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에 주목하고 이에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대인관계적 자기인식 개념이 개인으로 하여금 단순히 자신의 도덕적 측면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한다기 보다는 대인관계 장면에서 적절한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환경적 자기인식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잘 인지하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서 자신 내부 혹은 타인과의 관계와 같은 '사람 대 사람' 맥락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다양한 주변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적 자기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많이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관련된 유사한 연구들을 참고해보면, 자신의 주변(surroundings)에 대한 지각은 자신이 어떤 사람 인지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독특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적 맥락을 지각하면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반면(Phemister & Crewe, 2004), 유사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맥락을 지각하는 사람들은 덜 탈개인화(deindividuation)되는 경향이 있다(Diener, 1979; Wicklund, 1975).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어떤 것이 적절한 자기모습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변 환경을 명확하게 지각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인

식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보다 넓게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인식의 조절효과

자기인식은 전반적으로 행동의 조절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된 연구들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있다고 느낄 때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고(Pfattheicher & Keller, 2015),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주취(drunkenness)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자기인식이 조절하여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Park, Sher, & Krull, 2006). 그러나 이러한 자기인식이 조절변인으로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울한 사람에게 글쓰기 효과를 기대하며 글을 쓰게 하였을 때 3인칭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하여 글을 쓰는 경우 우울을 더 높이기도 하였다(Giovanetti, Revord, Sasso, & Haefel, 2019). 일반적으로 표현적 글쓰기는 우울의 감소를 도와주는데(Krpan et al., 2013), 우울에 취약한 사람들이 3인칭 시점에서 표현적 글쓰기를 하여 자신의 경험을 마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우울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인식이 단순히 스스로를 인식하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자기 관련 정보를 더 많이 떠오르게 하여(Eichstaedt & Silvia, 2003; Hull, Van Treuren, Ashford, Proppom, & Andrus, 1988) 개인의 행동이나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기인식의 조절변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토대로 보면, 샤덴프로이데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 역시 자기인식이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우선,

자신이 샤텐프로이데를 느끼면서 타인의 불행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우 이것이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해행동을 포함한 공격행동은 많은 경우 적절한 자기통제나 자기조절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Denson, Capper, Oaten, Friese, & Schofield, 2011; DeWall, Baumeister, Stillman, & Gailliot, 2007; DeWall, Finkel, & Denson, 2011). 그렇기 때문에 자기인식은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 내적으로 잠재해 있는 공격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절제하고 도덕적으로 적절한 적응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반면, 샤텐프로이데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신념이 강하게 인식되는 경우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해행동을 더 할 수도 있다. 즉, 자신의 샤텐프로이데적인 생각과 감정이 스스로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의해 종합적으로 지각되어 '나는 이러한 결과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공고하게 자리잡게 되는 경우, 타인의 곤경을 더 크게 원하고 이것이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자기인식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해보는 것은 자기조절 측면에서 그리고 대인관계 측면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목적에 구심점으로 하고 있다. 첫째, 샤텐프로이데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샤텐프로이데의 효과를 보여준

기존 연구들에서는 샤텐프로이데를 주로 현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샤텐프로이데의 기질적 특성이나 사회적 요인을 설명하거나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 정도로 샤텐프로이데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불행을 기대한다는 것은 대인관계 장면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협요인이며, 이는 타인을 공격하고 불행을 유도하는 등의 실질적인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줄일 수 있는 혹은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샤텐프로이데의 현상과 영향요인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샤텐프로이데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사이에서의 자기인식의 구체적인 기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전술한 자기인식의 양면적인 현상을 현실 생활에 적용해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관계적 차원에서의 정서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자기인식이 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자기인식이 오히려 부정적인 행동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인식의 기능을 짚어보는 것은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대인 간 문제행동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의 자기인식이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로운지를 제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연구를 바탕으로 샤텐프로이데가 공격행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간의 관계를 보여준 연구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샤텐프로이데가 사이버불링 가

해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를 자기인식이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셋째, 자기인식의 변별적인 기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기인식은 내적, 대인관계적, 환경적 차원의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변인이다. 이는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이 비단 자신의 내면에만 주의를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과의 관계나 상황에 대한 지각을 아우르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기인식의 조절효과 역시 자기인식의 접근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자기인식의 효과를 일차적으로 확인한 후 서로 다른 각도의 자기인식 경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기인식이 샤덴프로이데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볼 것이다.

이에 따라 도출된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청소년의 샤덴프로이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자기인식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 청소년의 샤덴프로이데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높일 것이다.

가설 2. 청소년의 전반적인 자기인식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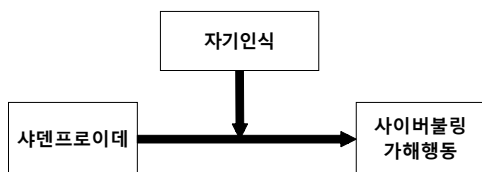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덴프로이데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3. 청소년의 내적 자기인식은 샤덴프로이데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 청소년의 대인관계적 자기인식은 샤덴프로이데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5. 청소년의 환경적 자기인식은 샤덴프로이데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방 법

연구참가자

본 연구는 대한민국 중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주)서던포스트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연령은 만 13세부터 18세까지 평균 15.75세(표준편차 1.34)였고, 남녀 비율은 각각 150명(50%)씩 동일하였다.

측정 도구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chadenfreude

Tendency Scale: STS)

청소년기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내아(2014)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평소 싫어하던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남모를 쾌감이 든다.”, “평소 부러워하던 사람이 잘 못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괜스레 안도가 된다.” 등 샤덴프로이데 경향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5점짜리 1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이 높을수록 사덴프로이데 경향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17이었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척도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김은경(2012)이 구성하고 송한아(2016)가 수정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다른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글을 온라인에 써서 올린 적이 있다.”, “채팅을 하면서 누군가의 어떤 면을 왜곡하여 말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놀리기 위한 글을 써서 올린 적이 있다.”와 같이 온라인 상에서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을 한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총 13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평균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27이었다.

자기인식척도(Self-Awareness Scale: SAS)

청소년의 자기인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정미와 박홍석(2017)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내적 자기인식(예: 나는 내 마음 속에 품은 생각들을 잘 알고 있다.), 대인관계적 자기인식(예: 나는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인식하고 있다.), 환경적 자기인식(예: 나는 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5점짜리 9개 문항(요인별 각 3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전체평균으로 전반적인 자기인식을 판단하고, 각각의 평균값으로 세부 자기인식 정도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자기인식 전체 .880, 내적 자기인식 .689, 대인관계적 자기인식

.806, 환경적 자기인식 .771이었다.

한국판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우울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Spitzer, Kroenke, Williams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rimary Care Study Group(1999)이 개발한 주요 우울장애 척도를 최홍석, 최지호, 박기호, 주규진, 가혁, 고희정, 김성열(2007)이 타당화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일을 함에 있어 거의 흥미가 없거나 즐거움이 없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 등의 내용에 대해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불편함을 느꼈는지를 측정하는 9문항 4점짜리 척도이다. 본 척도는 각 항목의 총점을 기준으로 우울경향성 정도를 확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경향이 높다고 판단하게 된다. 최홍석 등(2007)의 연구에서는 총점의 점수들에 구간을 나누고 이 구간에 따라 우울증상의 심각도를 변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우울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구간을 나누지 않고 총점의 정도를 기준으로 우울 경향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02였다.

범불안장애 설문지(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

Spitzer, Kroenke, Williams와 Löwe(2006)가 개발한 범불안장애 설문지(GAD-7)를 서종근(2015)이 타당화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너무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마치 끔찍한 일이 생길 것처럼 두렵게 느껴진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5점짜리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평균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

도는 .939였다.

주관적 사회계층, 학업성취도 등의 정보가 수집되었다(표 1 참조).

인구통계학적 변인

그 외, 성별, 연령, 학년, 학교 유형, 거주지,

자료 분석

표 1. 참가자 기초정보

항목	구분	빈도(300명)	비율(100%)
성별	남자	150	50
	여자	150	50
나이	만 13세	1	.33
	만 14세	64	21.33
	만 15세	82	27.33
	만 16세	49	16.33
	만 17세	69	23
	만 18세	35	11.67
학교 학년	중학교 1학년	0	0
	중학교 2학년	35	11.67
	중학교 3학년	115	38.33
	고등학교 1학년	26	8.67
	고등학교 2학년	77	25.67
학교 유형	고등학교 3학년	47	15.67
	일반중	147	49
	국제중	0	0
	예술중	0	0
	일반고	114	38
	특목고	3	1
	특성화고	28	9.33
	자사고	3	1
거주지	해당없음	5	1.67
	서울	54	18
	경기	105	35
	강원	7	2.33
	충남	22	7.33
	충북	14	4.67
	경남	35	11.67
	경북	26	8.67
	전남	20	6.67
	전북	13	4.33
	제주	1	0.33
	국외	3	1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기초적인 특성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독립변인(샤덴프로이데)과 모든 조절변인(자기인식 전체, 내적 자기인식, 대인관계적 자기인식, 환경적 자기인식)을 평균중심화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우울과 불안이 종속변인과 상관이 높은 변인이므로, 모형 1에 통제변인으로 우울과 불안을 투입하였고, 모형 2에 각각의 샤덴프로이데와 자기인식을, 모형 3에 샤덴프로이데와 자기인식의 상호작용 값을 투입하였다.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1번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Bootstrapping 무선표본추출 회수를 5000번으로 설정하고,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통해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였다(Hayes, 2013).

결 과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2 참조), 샤덴프로이데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r = .273, p < .01$), 우울($r = .321, p < .01$), 불안($r = .329, p < .01$)과 유의한 수준에서 정

표 2. 변인들 간 상관관계

	1	2	3	3-1	3-2	3-3	4	5
1. 샤넨프로이데	1							
2.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273**	1						
3. 자기인식	-.091	.103	1					
3-1 내적 자기인식	-.119*	.039	.884**	1				
3-2 대인관계적 자기인식	-.037	.140*	.869**	.656**	1			
3-3 환경적 자기인식	-.086	.084	.856**	.666**	.585**	1		
4. 우울	.321**	.202**	-.278**	-.261**	-.232**	-.235**	1	
5. 불안	.329**	.258**	-.230**	-.226**	-.207**	-.166**	.753**	1
평균	2.801	1.438	3.653	3.817	3.504	3.639	17.280	2.423
표준 편차	.897	.658	.668	.739	.824	.742	6.667	1.113
왜도	-.295	2.334	-.136	-.439	-.158	-.454	.790	.401
첨도	-.701	6.670	.158	.248	-.235	.571	-.102	-.785

* $p < .05$, ** $p < .01$

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우울($r = .202, p < .01$), 불안($r = .258, p < .01$)과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표 2 참조). 또한 왜도와 첨도를 토대로 본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절대값 기준으로 왜도는 0.136에서 2.334, 첨도는 0.102에서 6.670으로 정규성 기준(절대값 기준 왜도가 3 미만, 첨도가 8 미만, Kline, 2011)을 충족하였다.

자기인식의 조절효과

자기인식(평균 기준)의 조절효과

자기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있다. 분석 결과, 가해행동에 대한 샤넨프로이데의 주효과($\beta = .181, p < .01$)와 자기인식의 주효과($\beta = .178, p < .01$), 샤넨프

로이데와 자기인식의 상호작용효과($\beta = .140, p < .05$)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높은 샤넨프로이데는 높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자기인식 수준에 의해 더 강한 방향으로 조절되었다. 또한 Hayes(2013)의 PROCESS 1번 모델을 통해 샤넨프로이데가 자기인식 수준(-1SD, Mean, +1SD)에 따라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자기인식이 낮을 경우는 샤넨프로이데가 가해행동을 예측하지 못하는 반면($B = .036, BootSE = .063, 95\%CI[-.088, .160]$), 자기인식이 평균인 경우($B = .133, BootSE = .043, 95\%CI[.049, .217]$)와 높은 경우($B = .230, BootSE = .051, 95\%CI[.129, .332]$)는 샤넨프로이데가 가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평균 이상의 자기인식은 샤넨프로이데와 가해행동 간의 정적인 관계를 강화시켰다.

표 3. 자기인식의 조절효과

모형	변인	DV :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B	SE	β	t	p	R ²	adj.R ²	F
1	(상수)	1.057	.103		10.247	.000	.067	.061	10.637
	우울	.002	.008	.017	.202	.84			
	불안	.145	.050	.245	2.879	.004			
2	(상수)	1.094	.109		10.076	.000	.118	.106	9.897
	우울	.002	.008	.024	.29	.772			
	불안	.125	.049	.211	2.542	.012			
	샤넨프로이데	.155	.042	.211	3.662	.000			
	자기인식	.175	.055	.178	3.151	.002			
3	(상수)	1.108	.108		10.284	.000	.131	.116	8.869
	우울	.003	.008	.027	.329	.743			
	불안	.12	.049	.204	2.469	.014			
	A: 샤넨프로이데	.133	.043	.181	3.105	.002			
	B: 자기인식	.175	.055	.178	3.188	.002			
	A × B	.146	.057	.140	2.537	.012			
		자기인식 수준	Boot coefficient	Boot SE	95% CI				
					LLCI	ULCI			
샤넨프로이데	-1SD		.036	.063	-0.088	.160			
	Mean		.133	.043	.049	.217			
	+1SD		.230	.051	.129	.332			

또한 이러한 자기인식의 조절효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하위요인인 내적, 대인관계적, 환경적 자기인식 요인으로 나누어 조절효과를 다시 검증해보았다.

내적 자기인식의 조절효과

내적 자기인식의 조절효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가해행동에 대한 샤넨프로

이데의 주효과는 유의한 반면($\beta = .186, p < .01$), 내적 자기인식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109, p = .054$). 한편, 샤넨프로이데와 내적 자기인식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117, p < .05$). 즉, 높은 샤넨프로이데는 높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하고, 이러한 관계는 내적 자기인식 수준에 의해 더 강화되었다. Hayes(2013)의 PROCESS 1

표 4. 내적 자기인식의 조절효과

모형	변인	DV :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i>B</i>	<i>SE</i>	β	<i>t</i>	<i>p</i>	<i>R</i> ²	<i>adj.R</i> ²	<i>F</i>
1	(상수)	1.057	.103		10.247	.000	.067	.061	10.637
	우울	.002	.008	.017	.202	.840			
	불안	.145	.050	.245	2.879	.004			
2	(상수)	1.130	.109		10.373	.000	.118	.106	9.897
	우울	.000	.008	.004	.049	.961			
	불안	.124	.050	.210	2.500	.013			
	샤넌프로이데	.158	.043	.216	3.698	.000			
	내적 자기인식	.101	.051	.114	2.001	.046			
3	(상수)	1.139	.108		10.506	.000	.131	.116	8.869
	우울	.001	.008	.008	.093	.926			
	불안	.122	.049	.206	2.462	.014			
	A: 샤넌프로이데	.137	.044	.186	3.123	.002			
	B: 내적 자기인식	.097	.050	.109	1.936	.054			
	A × B	.116	.056	.117	2.076	.039			
내적 자기인식 수준		Boot coefficient	Boot SE	95% CI					
				LLCI	ULCI				
샤넌프로이데	-1SD	.051	.067	-.080		.183			
	Mean	.137	.044	.051		.223			
	+1SD	.222	.053	.119		.326			

변 모델을 통해 샤넌프로이데가 내적 자기인식 수준(-1SD, Mean, +1SD)에 따라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내적 자기인식이 낮을 경우는 샤넌프로이데가 가해행동을 예측하지 못하는 반면($B = .051$, $BootSE = .067$, $95\%CI[-.080, .183]$), 내적 자기인식이 평균인 경우($B = .137$, $BootSE = .044$,

$95\%CI[.051, .223]$)와 높은 경우($B = .222$, $BootSE = .053$, $95\%CI[.119, .326]$)는 샤넌프로이데가 가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평균 이상의 내적 자기인식은 샤넌프로이데와 가해행동 간의 정적인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인관계적 자기인식의 조절효과

대인관계적 자기인식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에서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샤넨프로이데의 주효과($\beta = .179, p < .01$)와, 대인관계적 자기인식의 주효과($\beta = .195, p < .001$), 샤넨프로이데와 대인관계적 자기인식의 상호작용 효과($\beta = .124, p < .05$)가 모두 유

의하게 나타났다(표 5 참조). 즉, 높은 샤넨프로이데는 높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하고, 이 관계는 대인관계적 자기인식 수준에 의해 조절되었다. Hayes(2013)의 PROCESS 1번 모델을 통해 샤넨프로이데가 대인관계적 자기인식 수준(-1SD, Mean, +1SD)에 따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표 5. 대인관계적 자기인식의 조절효과

모형	변인	DV :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B	SE	β	t	p	R ²	adj.R ²	F
1	(상수)	1.057	.103		10.247	.000			
	우울	.002	.008	.017	.202	.840	.067	.061	10.637
	불안	.145	.050	.245	2.879	.004			
2	(상수)	1.094	.107		10.187	.000			
	우울	.002	.008	.017	.207	.836			
	불안	.130	.049	.220	2.651	.008	.143	.131	12.291
	샤넨프로이데	.148	.042	.202	3.512	.001			
3	대인관계적 자기인식	.157	.044	.197	3.545	.000			
	(상수)	1.111	.107		10.392	.000			
	우울	.001	.008	.012	.142	.887			
	불안	.128	.049	.216	2.628	.009			
	A: 샤넨프로이데	.131	.043	.179	3.085	.002	.157	.143	10.987
	B: 대인관계적 자기인식	.155	.044	.195	3.526	.000			
A × B	.107	.048	.124	2.256	.025				
샤넨프로이데	대인관계적 자기인식 수준		Boot coefficient	Boot SE	95% CI				
					LLCI	ULCI			
	-1SD		.043	.063	-.081	.166			
	Mean		.131	.043	.048	.215			
	+1SD		.220	.053	.116	.324			

대인관계적 자기인식이 낮을 경우는 샤텐프로이데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하지 못하는 반면($B = .043$, $BootSE = .063$, $95\%CI[-.081, .166]$), 대인관계적 자기인식이 평균인 경우($B = .131$, $BootSE = .043$, $95\%CI[.048, .215]$)와 높은 경우($B = .220$, $BootSE = .053$, $95\%CI[.116, .324]$)는 샤텐프로이데가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평균 이상의 대인관계적 자기인식은 샤텐프로이데와 가해행동 간의 정적인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적 자기인식의 조절효과

환경적 자기인식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에

표 6. 환경적 자기인식의 조절효과

모형	변인	DV :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i>B</i>	<i>SE</i>	β	<i>t</i>	<i>p</i>	R^2	<i>adj.R^2</i>	<i>F</i>
1	(상수)	1.057	.103		10.247	.000			
	우울	.002	.008	.017	.202	.840	.067	.061	10.637
	불안	.145	.050	.245	2.879	.004			
2	(상수)	1.125	.108		10.427	.000			
	우울	.002	.008	.016	.190	.849			
	불안	.118	.049	.199	2.379	.018	.125	.113	10.502
	샤텐프로이데	.157	.043	.214	3.684	.000			
	환경적 자기인식	.123	.050	.139	2.484	.014			
3	(상수)	1.137	.108		10.570	.000			
	우울	.002	.008	.020	.239	.811			
	불안	.112	.049	.190	2.276	.024			
	A: 샤텐프로이데	.146	.043	.199	3.406	.001	.136	.121	9.237
	B: 환경적 자기인식	.114	.050	.129	2.293	.023			
	A × B	.099	.051	.107	1.944	.053			
환경적 자기인식 수준		Boot coefficient	Boot SE	95% CI					
				LLCI	ULCI				
샤텐프로이데	-1SD	.072	.061	-.048					
	Mean	.146	.043	.062					
	+1SD	.219	.053	.115					

서는, 가해행동에 대한 샤넨프로이데의 주효과($\beta = .199, p < .01$)와 환경적 자기인식의 주효과($\beta = .129, p < .05$)가 유의한 반면, 샤넨프로이데와 환경적 자기인식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107, p = .053$). 즉, 높은 샤넨프로이데는 높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환경적 자기인식 수준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다. 즉, 샤넨프로이데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환경적 자기인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6 참조).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샤넨프로이데가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내적, 대인관계적, 환경적 자기인식이 조절하는 효과를 확인해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샤넨프로이데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하였다. 타인의 불행에 대해 유쾌한 감정을 가지는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하는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정서가 행동을 예측한다는 기존 학설(Lazarus, 1968)을 샤넨프로이데를 적용해 재확인한 결과임과 동시에, 샤넨프로이데가 시기심과 유사한 맥락(강다겸, 장재홍, 2013; 박우람, 홍상환, 2015; 성운아, 김운정, 2018)에서 공격행동의 중요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기심과 샤넨프로이데는 높은 상관을 보이며(이내아, 2014; Abell & Brewer, 2018), 상대방이 좋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쁘게 되기를 바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확인된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샤넨프로이데가 단순히 타인의 불행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상대방의 불행을 유도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가해행동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인한 공격이나 불안의 해소를 위한 비행행동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이 여과없이 분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샤넨프로이데는 이러한 온라인 환경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평균 이상의 내적 자기인식과 대인관계적 자기인식은 샤넨프로이데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내적 자기인식이 평균 이상인 경우 샤넨프로이데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이 결과는 타인에 대해 갖고 있는 징벌적인 자기인식이 명료해질 때 공격행동으로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Carver(1975)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연구가 제안했던 인지부조화를 줄이는 방향, 즉 타인이 잘못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행동이 유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샤넨프로이데가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으로 하여금 타인이 곤경에 처하게 되거나 상대방이 잘못될 수 있는 자신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한편, 자기인식이 긍정적인 행동 변화

를 촉진하고(이정미, 박홍석, 2017)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유도한다는 결과(Beaman, Klentz, Diener, & Svanum, 1979)와는 배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이 반드시 내면에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긍정적 방향이든 부정적 방향이든 자신이 갖고 있는 일정한 기준이 있을 때 자기인식으로 인해 이것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평균 이상의 대인관계적 자기인식 역시 샤펜프로이데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이 결과에서 자기인식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보기를 바라는 이상자기 지각의 의미라기보다는, 대인관계 장면에서 타인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샤펜프로이데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상대방보다 나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각하여 정서적 쾌감과 안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에 상대방이 불행한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타인에 대한 샤펜프로이데가 있고 자신의 샤펜프로이데적인 신념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우 이는 타인의 불행을 위한 가해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타인에게 공격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이 누군가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각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자존감과 만족감을 지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경적 자기인식은 샤펜프로이데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았다. 이는 자기인식의 작용이 개념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개념적으로 환경적 자기인식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주변의 대상들에 대해 잘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주변을 이루는 대상들이나 상황들은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물이나 사건들일 수도 있으며, 주변이라는 의미 역시 그 범위가 모호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적 자기인식의 개념은 기본 골자가 주변의 것들에 의해 자기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환경에 대한 지각이 자신을 주변의 맥락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는 하지만(Diener, 1979; Phemister & Crewe, 2004; Wicklund, 1975), 이것이 내적·대인관계적 자기인식이 내면의 정서와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만큼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어렵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보면, 다른 두 종류의 자기인식과 비교했을 때 환경적 자기인식은 대인관계 혹은 타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환경적 자기인식 요인은 자신의 삶을 이루고 있는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신의 내면 상태 혹은 타인의 시선과 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역동에 있어서 동력이 될 수 있는 효과가 다소 약할 수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다만,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므로 이러한 환경적 자기인식의 효과는 환경의 특성 혹은 상황에 대한 민감성의 개인차 등을 고려해 좀 더 깊이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학술적·실용적 함의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학술적으로 샤펜프로이데의 행동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

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사넨프로이데 고유의 특성에 대한 설명에 주로 주목해왔다(e.g., Coppens, 2008; Smith et al., 1996; Takahashi et al., 2009). 이는 사넨프로이데가 타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정서적 태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면의 작동과정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서가 행동을 예측한다는 고전적인 과정을 상기해보면(Lazarus, 1968), 타인이 부정적인 상황에 놓인 것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것은 상대방이 직간접적인 경로로 불행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넨프로이데가 사이버상에서 공격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이는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가해행동의 원인이 관계적 측면에서 기대하는 악의적인 태도로부터도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정서로서 사넨프로이데의 특성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학술적으로 설명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자기인식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속성을 지닌 변인이 아닌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와 같은 내면상태를 단순히 구체화하는 인지개념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기인식에 대한 앞선 연구들에서는 자기인식을 순기능 혹은 역기능 차원에서 이해하면서 자기인식이 보여주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현상들을 제시하고 있다(이정미, 박홍석, 2017; Beaman, Klentz, Diener, & Svanum, 1979; Carver, 1975).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자기인식의 긍정적인 역할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모습, 내 주변의 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

지각이 자기관찰의 기능을 하면서 개인으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볼 때는 대상을 인지하는 과정 자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행동추구의 방향은 그 이후의 과정이며, 여기에는 사넨프로이데와 같은 개인적 요인들이 개입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인식은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의 내면 상태에 따라 역기능적으로도 순기능적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사이버불링 가해행동과 같은 장면에서는 자신의 도덕성을 각성시키는 방향의 자기인식이 필요하므로, 개인 내면의 윤리와 도덕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면에서 청소년기 공감교육의 중요성을 제안해볼 수 있다. 사넨프로이데는 공감과 부적상관을 갖는 변인으로(Crysel & Webster, 2018), 공감을 덜 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불행을 기대하는 경향이 높다. 이는 타인의 불행을 볼 때 마치 자신이 경험하는 것과 같이 어려움을 느끼고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적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공감은 공격행동을 줄이는 기능이 있는데(Feshbach, 1975; Hoffman, 2000; Jolliffe & Farrington, 201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공감 정도가 높은 아이들은 신체적 공격은 물론 언어적 공격의 정도 역시 낮았고(Kaukiainen et al., 1999), 평소 일상생활에서 문제행동을 덜 일으키고

비행행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rlo, Roesch, & Melby, 1998; Cohen & Strayer 1996; Hastings & Zahn-Waxler 1998; Tremblay et al., 1994). 이는 공감을 잘 하는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죄책감을 더 잘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Tangney, 1991).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는, 타인의 불행에 대한 기대가 공격행동을 높이고 특히 이러한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명확히 인지되는 경우 공격행동 가능성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본 신념과 기대가 공감적이며 이타적인 방향인 경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친사회적인 행동 혹은 반사회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사이버불링 가해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장면에서 점화될 수 있는 행동준비 체계가 친사회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마치 자신의 경험처럼 짐작해볼 수 있는 공감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청소년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8)에서는 주로 청소년이 살아가는데 접하는 유해환경 개선이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의 제도적 기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실질적인 갈등을 다루고 이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외적 환경의 조성 못지않게 개인 내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상황과 대인관계를 배우는 성장기이므로 생각과 행동 차원에

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과 즐거움을 바라는 특성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타인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거나 누군가의 행복이 침해된다면 이는 사회문제의 근원을 방치하는 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윤리와 도덕에 기반한 올바른 관점을 발달시키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적 측면에서 자기가치감을 확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크고 작은 일상 속 장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타인과 비교하며 더 나은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를 사회적 기준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개인에게 불안정과 불만을 높여 타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상대방의 불행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상향비교를 하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를 높이는 등 부정 정서를 유도하며(차민정, 박소영, 송현주, 노연희, 2012; Buunk & Gibbons, 2007),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Testa & Major, 1990).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유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 요인 못지않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긍정적 존재가치를 발견하고 건강한 자기상을 확립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정책의 노력, 사회적 분위기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동을 선도하고 올바른 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질적인 발전의 핵심적인 기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들을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 이루어질 관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실질적인 가해행동과 샤넌프로이데를 경험하는 정도를 설명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행동경향성을 설문형식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샤넌프로이데의 경우 정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상황특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인지 고유한 특질로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인지에 따라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상황에 대한 민감성에 기인한 공격행동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집단 내에서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 설문으로는 전반적인 샤넌프로이데 경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샤넌프로이데가 어떤 특성으로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가해행동 역시 개념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 수준에서의 관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교한 수준에서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고 행동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행동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문 연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변인 간의 상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명확한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잘 짜여진 실험장면에서 각 변인들을 보다 정교하게 정의하고 참여자의 실질적인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변인 간 인과관계를 보다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적절한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타인의 존재가 어떤 대상을 의미하

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범위를 제한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샤넌프로이데는 인물 대상에 대한 정서이며,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발현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이를테면, 정서를 느끼는 대상이 미디어에서 소개되는 인물 혹은 자기와 관련이 없는 불특정의 개인인지 자신이 싫어하는 타인인지 특별한 호오(好惡)가 없는 타인인지에 따라 심리적 거리와 정서의 강도 등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추측하건대, 자기와의 거리가 가깝고 상대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감정이 더 강할수록 그에게 잘못되는 일이 있었으면 하거나 상처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더 강하고 구체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샤넌프로이데의 영향을 다루는 추후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자신과의 심리적 거리와 부정적 감정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명확하게 분류하여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변별적인 양상을 관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인식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인식을 Govern과 Marsch(2001)의 제안에 따라 크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아는 것, 관계적인 상황에서의 자신을 지각하는 것,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지하는 것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샤넌프로이데와 같은 내면의 상태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기인식의 기능이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타인에 대한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적절한 행동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행동이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사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상황에 대한 일정한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자기통제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Trope & Liberman, 2010). 따라서 행동에 서의 유의한 효과로 나타나는 요인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사토프로이데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그리고 자기인식 간의 관계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것이 성인기와 함께 일반화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탐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평균이 1.438로 매우 낮았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하는 정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만연해있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내적 요인을 짚어 보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의미가 있으나,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발달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 반사회적 행동의 발현 가능성은 아직은 유동적이며, 이에 성인의 가해행동과 동일한 패턴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구조를 성인기에 적용하여 관찰해보고 청소년기 결과와 비교해본다면,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공고히 설명함과 동시에 청소년기에 더불어 사는 사회에 필요한 윤리와 도덕을 함양하기 위한 인지·정서·행동의 발달상의 필요 요인들을 아울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다겸, 장재홍 (2013). 여중생의 시샘, 질투 및 분노가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449-470.
교육부 (2019).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권문자 (2013). 청소년의 사이버불링과 우울 및 자살사고와의 관계 - 부모 양육태도와 또래 애착의 조절효과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선, 손병덕 (2020). 청소년 사이버불링 관련 요인 상관관계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7(11), 377-399.
김은경 (2012).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송 (2007). 청소년의 우울, 스트레스 대처, 강인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3), 587-598.
김태용 (2016). 청소년의 개인 내적 특성이 사이버불링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자이존중감, 감각추구성향, 우울을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우람, 홍상황 (2015).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정서조절, 질투와 시샘의 순차적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4(1), 1-23.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서종근 (2015). *Validation of the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 and GAD-2 in patients with migraine*.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성윤아, 김윤정 (2018). 관계적 공격성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2), 513-521.
송한아 (2016).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과 특성

- 분노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 (2004). 비행 청소년의 생활적응 문제에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 효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91-510.
- 안도연, 조명현 (2022).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샤넨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1(4), 295-318.
- 여성가족부 (2018).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염동문, 김선주, 이성대 (2014). 청소년의 인터넷 과다사용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4), 159-183.
- 유선미, 김정민, 김찬권 (2017).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3(3), 63-82.
- 이내아 (2014). 청소년의 샤넨프로이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 박홍석 (2017). 자기인식척도(SAS)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8(5), 21-40.
- 이정민, 조운오 (2016). 청소년의 연령별 사이버불링 행동 요인 분석-손베리의 상호작용이론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11(4), 321-348.
- 전신현, 이성식 (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집단괴롭힘 현상의 원인 모색. *청소년학연구*, 17(11), 159-181.
- 차민정, 박소영, 송현주, 노연희 (2012). 집합주의 문화가 청년실업에 대한 불안 지각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1), 27-51.
- 최광선, 정명선 (1999). 공격특성과 성폭력 영화에의 반복 노출이 시청자의 기분변화, 폭력영화 및 피해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5(2), 123-139.
- 최홍석, 최지호, 박기호, 주규진, 가혁, 고희정, 김성열 (2007). 주요우울장애의 선별 도구로서 한국판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의 표준화. *가정의학회지*, 28(2), 114-119.
- Abell, L., & Brewer, G. (2018). Machiavellianism and schadenfreude in women's friendships. *Psychological reports*, 121(5), 909-919.
- Beaman, A. L., Klentz, B., Diener, E., & Svanum, S. (1979). Self-awareness and transgression in children: Two field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835-1846.
- Brambilla, M., & Riva, P. (2017). Self image and Schadenfreude: Pleasure at others' misfortune enhances satisfaction of basic human need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4), 399-411.
- Brubaker, P. J., Montez, D., & Church, S. H. (2021). The Power of Schadenfreude: Predicting Behaviors and Perceptions of Trolling Among Reddit Users. *Social Media + Society*, 7(2), 1-13.
- Buunk, A. P., & Gibbons, F. X. (2007). Social comparison: The end of a theory and the emergence of a field.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2(1), 3-21.
- Carlo, G., Roesch, S. C., & Melby, J. (1998). The multiplicative relations of parenting and temperament to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s in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8(3), 266-290.

- Carver, C. S. (1975). Physical aggression as a function of objective self-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punish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6), 510-519.
- Cline, V. B., Croft, R. G., & Courier, S. (1973). Desensitization of children to television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3), 360-365.
- Cohen, D., & Strayer, J. (1996). Empathy in conduct-disordered and comparison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988-998.
- Coppens, F. (2008). *Emotions elicited by the (mis) fortunes of others: Spotlighting Schadenfre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ilbur University, Tilburg, Netherlands.
- Crawford, T. N., Cohen, P., Midlarsky, E., & Brook, J. S. (2001). Internalizing symptoms in adolescents: Gender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to parental distress and discord.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95-118.
- Crysel, L. C., & Webster, G. D. (2018). Schadenfreude and the spread of political misfortune. *PLoS one, 13*(9), e0201754.
- Demeter, E., Rad, D., & Balas, E. (2021). Schadenfreude and General Anti-Social Behaviours: The Role of Violent Content Preferences and Life Satisfaction. *Broad Research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euroscience, 12*(2), 98-111.
- Denson, T. F., Capper, M. M., Oaten, M., Friese, M., & Schofield, T. P. (2011). Self-control training decreases aggression in response to provocation in aggressive individua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2), 252-256.
- DeWall, C. N., Baumeister, R. F., Stillman, T. F., & Gailliot, M. T. (2007). Violence restrained: Effects of self-regulation and its depletion on aggres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1), 62-76.
- DeWall, C. N., Finkel, E. J., & Denson, T. F. (2011). Self control inhibits aggressio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7), 458-472.
- Diener, E. (1979). Deindividuation, self-awareness, and disinhib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7), 1160-1171.
- Dishion, T. J., Patterson, G. R., & Griesler, P. C. (1994). Peer adaptations i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Aggressive behavior* (pp. 61-95). Springer, Boston, MA.
- Dijkstra, J. K., Kretschmer, T., Pattiselanno, K., Franken, A., Harakeh, Z., Vollebergh, W., & Veenstra, R. (2015). Explaining adolescents'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A test of the maturity gap: The SNARE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2*(5), 747-767.
- Duval, S., & Wicklund, R. A. (1972). *A theory of objective self awareness*. Cambridge: Academic Press.
- Duval, S., & Wicklund, R. A. (1973). Effects of objective self-awareness on attribution of caus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1), 17-31.
- Eichstaedt, J., & Silvia, P. J. (2003). Noticing the self: Implicit assessment of self-focused attention using word recognition latencies. *Social Cognition, 21*(5), 349-361.
- Erzi, S. (2020). Dark Triad and schadenfreude: Mediating role of moral disengagement and

- relation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7, 109827.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 Feshbach, N. D. (1975). Empathy in children: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 25-30.
- Franzoi, S. L., Davis, M. H., & Markwiese, B. (1990). A motivational explanation for the existence of private self consciousness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58(4), 641-659.
- Giovanetti, A. K., Revord, J. C., Sasso, M. P., & Haefel, G. J. (2019). Self-distancing may be harmful: Third-person writing increases levels of depressive symptoms compared to traditional expressive writing and no writ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8(1), 50-69.
- Govern, J. M., & Marsch, L. A.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ituational self-awareness scale.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0(3), 366-378.
- Hastings, P. D., & Zahn-Waxler, C. (1998). *Psychophysiological and socialization predictors of empathy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In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yes, A. D. (2013).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Higgins, E. T. (1998). *Promotion and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s a motivational principle*.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pp. 1-46). Cambridge: Academic Press.
- Hinduja, S. & Patchin, J. W. (2010). *Cyberbullying fact sheet: 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response*.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 Hinduja, S. & Patchin, J. W. (2012). Cyberbullying: Neither an epidemic nor a rarity.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5), 539-543.
-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ll, J. G., Van Treuren, R. R., Ashford, S. J., Proptom, P., & Andrus, B. W. (1988). Self-consciousness and the processing of self-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3), 452-465.
-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11). Is low empathy related to bullying after controlling for individual and social background variables?. *Journal of adolescence*, 34(1), 59-71.
- Kaukiainen, A., Björkqvist, K., Lagerspetz, K., Österman, K., Salmivalli, C., Rothberg, S., & Ahlbom, A. (1999).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intelligence, empathy, and three types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5(2), 81-89.
- Keltner, D., & Haidt, J. (1999). Social functions of emotions at four levels of analysis. *Cognition & Emotion*, 13(5), 505-521.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USA: The Guilford Press.
- Krpan, K. M., Kross, E., Berman, M. G., Deldin, P. J., Askren, M. K., & Jonides, J. (2013). An everyday activity as a treatment for depression: the benefits of expressive writing for people diagnosed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0*(3), 1148-1151.
- Lazarus, R. S. (1968). *Emotions and adapt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relations*.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Leary, M. R., & Kowalski, R. M. (1990). Impression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and two-compon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1), 34-47.
- Markus, H. R. (1978). The effect of mere presence on social facilitation: An unobtrusive tes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4), 389-397.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701.
- Morin, A., & Everett, J. (1990). Inner speech as a mediator of self-awareness, self-consciousness, and self-knowledge: An hypothesis. *New Ideas in Psychology, 8*(3), 337-356.
- Ouwerkerk, J. W., & Johnson, B. K. (2016). Motives for online friending and following: The dark side of social network site connections. *Social Media + Society, 2*(3), 1-13.
- Park, A., Sher, K. J., & Krull, J. L. (2006).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Greek effect" on risky drinking: the role of self-consciousnes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0*(1), 85-90.
- Pfaffheicher, S., & Keller, J. (2015). The watching eyes phenomenon: The role of a sense of being seen and public self awarenes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5), 560-566.
- Phemister, A. A., & Crewe, N. M. (2004). Objective self-awareness and stigma: Implications for persons with visible disabilities. *The Journal of Rehabilitation, 70*(2), 33-38.
- Price, E. L. (2002). *Risk factors for boys' psychologically abusive behaviour in dating relationships (Doctoral dissertation, ProQuest Information & Learning)*. National Library of Canada= Bibliothèque nationale du Canada, Ottawa.
- Rad, D. (2021). Schadenfreude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difficulties in following the rules. *Educația Plus, 29*(2), 40-54.
- Sawada, M., & Hayama, D. (2012). Dispositional Vengeance and Anger on Schadenfreude. *Psychological Reports, 111*(1), 322-334.
- Schlenker, B. R. (1980). *Impression management: The selfconcept, social 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 Slopen, N., Fitzmaurice, G. M., Williams, D. R., & Gilman, S. E. (2012). Common patterns of violence experiences and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adolesc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7*(10), 1591-1605.
- Smith, R. H. (2013). *The joy of pain: Schadenfreude*

- and the dark side of human n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R. H., & Kim, S. H. (2007). Comprehending envy. *Psychological Bulletin*, *133*(1), 46-64.
- Smith, R. H., Turner, T. J., Garonzik, R., Leach, C. W., Urch-Druskat, V., & Weston, C. M. (1996). Envy and Schadenfreu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2), 158-168.
- Snell, P. A., & Englander, E. K. (2010).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behaviors among girls: Applying research findings in the field. *Journal of Social Sciences*, *4*(4), 510-514.
- Spitzer, R. L., Kroenke, K., Williams, J. B., & Löwe, B. (2006). A brief measure for assessi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GAD-7.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6*(10), 1092-1097.
- Spitzer, R. L., Kroenke, K., Williams, J. B.,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rimary Care Study Group. (1999). Valid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JAMA*, *282*(18), 1737-1744.
- Steinbeis, N., & Singer, T. (2013). The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on social emotions and behavior during childhood: The ontogeny of envy and Schadenfreude predicts developmental changes in equity-related deci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2*(1), 198-209.
- Takahashi, H., Kato, M., Matsuura, M., Mobbs, D., Suhara, T., & Okubo, Y. (2009). When your gain is my pain and your pain is my gain: neural correlates of envy and schadenfreude. *Science*, *323*(5916), 937-939.
- Tangney, J. P. (1991). Moral affect: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8-607.
- Testa, M., & Major, B. (1990). The impact of social comparisons after failure: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1*(2), 205-218.
- Tremblay, R. E., Pihl, R. O., Vitaro, F., & Dobkin, P. L. (1994). Predicting early onset of male antisocial behavior from preschool behavio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9), 732-739.
- Trope, Y., & Liberman, N. (2010). Construal-level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117*(2), 440-463.
- Van Bommel, M., van Prooijen, J., Elffers, H., & van Lange, P. A. M. (2014). Intervene to be seen: The power of a camera in attenuating the bystander effect.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5*(4), 459-466.
- Van Dijk, W. W., Ouwerkerk, J. W., Smith, R. H., & Cikara, M. (2015). The role of self-evaluation and envy in schadenfreude.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26*(1), 247-282.
- Van Vugt, M., Roberts, G., & Hardy, C. (2007). Competitive altruism: Development of reputation-based cooperation in groups. In R. Dunbar, & L. Barrett (Eds.), *Handbook of evolutionary psychology* (pp. 531-54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ang, S., Lilienfeld, S. O., & Rochat, P. (2019). Schadenfreude deconstructed and reconstructed: A tripartite motivational model. *New Ideas in Psychology*, *52*, 1-11.

- Wicklund, R. A. (1975). Objective self-awarenes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8, pp. 233-275). New
York: Academic Press.
- Wills, T. A. (1981). Downward comparison
principles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0(2), 245-271.
- Zajonc, R. B., Heingartner, A., & Herman, E. M.
(1969). Social enhancement and impairment of
performance in the cock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2), 83-92.

논문 투고일 : 2022. 07. 27
1 차 심사일 : 2022. 07. 31
2 차 심사일 : 2022. 09. 13
게재 확정일 : 2022. 09. 28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Awar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adenfreude and Cyberbullying

Myung Hyun Cho¹⁾

Doyoun An²⁾

¹⁾BK21 FOUR R&E Center for Psychology, Korea University

²⁾Division of Psychology & Child Care, Hanshi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hypothesis that intrapersonal, interpersonal, and environmental self-awareness would alleviate the association between Schadenfreude and cyberbullying. 30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swered survey questionnaires including Schadenfreude, cyberbullying behavior, (intrapersonal, interpersonal, and environmental) self-awareness, depression, and anxiety. After controlling depression and anxiety, the results reveal that first, Schadenfreude predicts cyberbullying behavior, so those who have a high level of Schadenfreude commit more online cyberbullying behavior. Second,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self-awareness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Schadenfreude and cyberbullying, and those who were above average on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self-awareness were more liable to commit cyberbullying, but those below average did not show a significant moderation effect. Third, whereas environmental self-awareness did not show a significant moderation effect. Specifically, those who know well what they think and do and what they look lik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erpetrate more cyberbullying when their Schadenfreude was high. However, knowing well about what was happening around them was not related to the likelihood of Schadenfreude that lead to cyberbully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Schadenfreude, which deals with emotions on expecting the misfortune of others and the possibility of having antisocial characteristics, lead to actual cyberbullying behaviors of adolescents. Also, this study identified that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self-awareness are harmful in causing cyberbullying in those with high Schadenfreude. Finally, the implication an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chadenfreude, Cyberbullying, Self-Awareness